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생생리포트

■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개최 현황과 발전방향

김영등(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개최 현황과 발전방안

김영등
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cafebbang@daum.net

I. 추진배경

1.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과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 생활창작과 사회적경제

II.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추진 현황과 성과

1. 행사개요
2. 추진방향
3. 추진성과

III.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의 미래와 발전방안

1. 미래
2. 발전방안

I. 추진배경

1. 홍대앞 예술시장 프리마켓과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2014년 올해 처음 개최했지만 그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젊은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이하 프리마켓, Seoul Art Freemarket)을 시작하였고 이런 활동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로 성장하였다.

프리마켓은 창작자들이 직접 참여해 작품 전시와 판매, 공연, 창작 워크숍 등을 펼치는 주말 시장(장터)로서 손작업하는 다양한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창작자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교류의 장, 공공공간의 문화공간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국제적인 관광명소, 지역의 명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서 프리마켓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프리마켓은 홍대 앞에서 시작했고 가장 활발하지만 ‘홍대 앞 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전국에 확산되어 여러 지역과 행사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활과 문화의 활동형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2. 생활창작과 사회적경제

프리마켓은 야외에서 주말에 열리고 창작자가 작품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 시민들을 만난다. 개성있는 작품이라면 전공, 경력, 나이, 성별, 국적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창작 워크숍과 공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펼쳐진다. 그리고 때로 다른 지역에서 시장을 열거나 창작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과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프리마켓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은 대체로 프리마켓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창작과 자립적인 활동을 꾀하고 있다.

프리마켓은 창작을 매개로 하지만 기존 창작활동과 다른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을 ‘생활창작’으로 부른다. 생활창작은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에서 기존 시스템과 달리 생활영역에 깊게 연결되고 생활(일상)의 변화를 꾀하는 것까지 이르는 폭넓은 활동이다.

프리마켓은 1년 단위로 창작자를 등록받는데 대략 400여명(등록신청자는 1000여명)이 등록해 활동한다. 최근에는 저성장 고실업 사회인만큼 기존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경향이 높은 만큼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고 일반적인 창작영역 뿐 아니라 농업과 요리 등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프리마켓과 생활창작은 사회적경제영역의 발전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II.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추진 현황

1. 행사개요

<표 1>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행사개요

구분	내 용
명칭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014 Seoul International Handmade Fair 2014
기간	2014년 9월 17일(수) ~ 20일(토) / 4일간 (오전 10:00 - 오후 7:00)
장소	서울 삼성동 COEX, Hall B
규모	7,290 m ² (19개국 402개사 546부스)
주최	사회적기업 일상에술창작센터, (주)한국국제전시
후원	서울문화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청년허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한국공예가협회

2. 추진방향

먼저, 일상적인 공간에서 열리는 시장과 대규모 박람회는 큰 차이가 있지만 기존 프리마켓과 생활창작의 활동과정에서 관계 맺은 개인과 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행사를 만드는 것이 행사의 의미도 살리고 행사 자체의 성공도 이룰 수 있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그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획위원회와 큐레이터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행사의 방향과 내용에서 일관성을 만들었다.

또한, 핸드메이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슈를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주제를 ‘핸드메이드_오래된 미래를 열다’ 로 잡았다. 핸드

메이드를 개인의 취미영역이나 단순히 손으로 물건을 만든다는 것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와 실천 속에 두어야 핸드메이드가 가진 새로운 창의와 성장동력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핸드메이드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모으고 연결하는데 집중했다. 페어이기 때문에 부스를 판매해야 하고 거기서 기본적인 수입을 달성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핸드메이드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야 행사의 기본이 구성되는 만큼 1인창작자, 단체와 기업, 지자체와 기관, 연결이 가능한 다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널로 참가를 조직하고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다. 사회적경제 영역을 페어의 기본 축으로 구성하고 핸드메이드 영역의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동기부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제적인 환경에서 핸드메이드도 국제적인 교류는 기본인 만큼 국제적인 교류의 시발점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 밖에도 관람객 즉 시민들이 행사에 와서 핸드메이드의 폭넓은 세계를 자연스럽게 즐기고 경험하며 능동적인 참여와 상상이 가능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페스티벌로서 의미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

3. 추진성과

행사는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다. 핸드메이드 관련한 1인창작자에서 단체와 기관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만남과 교류, 주제와 이슈가 살아 있고 문화와 경제적인 영역이 유기적으로 만나는 자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 등을 만들었다. 핸드메이드를 주제로 문화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박람회가 가능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였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 넘게 핸드메이드 영역을 개척해온 현장그룹이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표 2〉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개최 결과

구분		내 용
전시장	코엑스	7,290 sqm(B홀)
참가 업체		19개국 402개사 546부스
		공예(161), 패션(91), 리빙(78), 아트(63), 재료/도구(24), 먹거리(24), 그린(20), 뷰티(15), 퍼포먼스(13), 기타(6)
참관객	총계	45,722명
	성비	여성 78%, 남성 22%
	연령	20대 35.9%, 30대 30%, 40대 18.7%, 50대 8.1%, 10대 5.7%
	목적	일반관람 58.8%,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18%, 작품구매 17.9%, 차기년도 참가검토 2.2%, 이벤트 1.8%, 바이어 1.4%

* 참가업체분류는 참가업체의 해당 품목 군에 따라 복수 체크가 있음

〈표 3〉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행사구성

구분		내 용
주제 관	섹션1	개별의 삶이 있는 역사, 공동의 역사를 지닌 삶, 삶과 함께 한 핸드메이드
	섹션2	핸드메이드(handmade)는 핸드에이드(handaid)다
	섹션3	미래의 핸드메이드_온고지신(溫故知新)
특별관	1	서울시 사회적경제관
	2	디렉터스초이스, 해외특별관
행사 구성	Living& Art	핸드메이드는 생활이다
		페어에 참여한 개인, 기업, 단체, 기관의 다종다양한 부스존
	Play	핸드메이드는 놀이다
		창작공방존, 캐리커처&초상화존, 라이브페인팅존 등
Event	핸드메이드는 마당이다	
	어쿠스틱 릴레이 공연, 세미나(주제전 참여작가와 만남) 핸드메이드토크, 생활창작포럼, 창작 관련 실무강의 등	

Ⅲ.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의 미래와 발전방안

1. 미래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올해 첫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로 나아가고자 한다.

서울은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영역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올해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서울시사회적경제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서울시창작공간’ 부스 등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번에 페어에 참가한 대부분의 단체와 개인이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구성원들이다. 그런 만큼 서울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흐름을 기반으로 그런 흐름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박람회로서 성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핸드메이드는 인간의 작은 손에서 시작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역이나 국경을 넘어 국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려면 국제적인 소통과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올해 일부 국가의 핸드메이드 관련한 공동체, 개인과 단체가 참여해서 행사의 국제성을 살릴 수 있었다. 향후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인 핸드메이드 플랫폼으로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를 폭넓게 일궈갈 것이다.

핸드메이드는 역사와 함께 하지만 최근 창의경제나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직 시작단계이다. 단순한 판매전과 같은 행사는 더러 있지만 핸드메이드가 가진 의미와 방향 그리고 공적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우리 사회 핸드메이드의 현재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로 건강하게 자리매김 할 것이다.

2. 발전방안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성과를 만들고 사회적인 흐름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런 흐름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울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려면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 정책과 지원이 함께 해야 한다.

2015년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는 올해보다 한 단계 발전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하며, 그런 면에서 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가 발전하려면 행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페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페어와 연결된 일상적인 활동(사업)과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향후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한다.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마켓과 같은 시장 그리고 생활창작 등 다채로운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없다. 창조나 창의를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없어서 걸돌기 쉽다.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그리고 그에 기반한 발전 전략을 도시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가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MICE 사례로 사회적경제영역 발전의 실질적인 전진기지로서 밝은 미래를 그려본다. 아름다운 손들의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